

# 소상공인 활력 · 간판업체 판로 확대

# 전주시, 노인일자리 670명 추가 제공

### 전주시, 내달 3일까지 간판 설치비 지원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참여자 접수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후 재개업 · 매출 감소 등 소상공인 대상 우선순위 따라 선정

장기화된 코로나19로 힘겨운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침체된 지역 간판업체를 돕기 위한 소비 쿠폰이 발급된다.

전주시는 다음 달 3일까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했거나 폐업한 뒤 다시 문을 여는 소상공인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간판 설치비를 지원하는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참여자를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은 벽면 이용간판과 돌출간판 등 소상공인의 노후광고물을 교체하거나 신규광고물을 제작·설치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 20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4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 내 사업자 등록이 된 소상공인으로, 유형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1순위는 지난 2019년 10월 31일 이전

개업한 자 중 경영상 어려움으로 2020년 3월 1일 이후 폐업한 후 전주시에서 재개업하려는 자다.

지난 2019년 10월 3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자이거나 지난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 사이 개업한 소상공인 중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의 경우 각각 2, 3순위로 선정된다.

다만, 대기업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이거나 약국, 담배 중개업, 일반·무도유희주점업,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주시 내에 사업자 등록된 옥외광고사업자를 통해 간판 제작·설치를 진행한 후 전주시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간판 설치 후에는 완산·덕진구청 건축과를 통해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를 반드시 득해야 하는 만큼 사업 신청 전 간판 설치 가능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희망자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지원신청서와 광고 수행계획서 등을 작성해 전주시청 건축과 광고물행정팀(완산구 노송광장로 10, 4층)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는 이번 간판 제작·설치비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경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하고 옥외광고 사업자들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20일까지 공익형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모집

전주시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670명 규모의 노인일자리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와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등 7개 기관에서 공익형 및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참여할 670명을 모집한다.

분야별로는 공익형 500명과 사회서비스형 170명으로, 다음 달부터 3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동 주민센터와 대한노인회 전주시지

회, 서원시니어클럽이 수행하는 공익형의 경우 하루 3시간씩 주 3회에 걸쳐 근무하게 되며, 매월 27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와 안골·금암·양지노인복지관, 전주·효자시니어클럽에서 수행하는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1일 3시간씩 주 5회 근무해 월 최대 71만2000원(연차수당 별도)이 지급된다.

참여자격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신체활동이 가능한 자로,

희망자는 각 수행기관을 방문해 참여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기초연금 통장내역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 선발 통보일은 이달 31일 이내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총 1만233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왔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어르신들의 안전교육 및 활동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어르신들의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를 통한 건강증진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청년이 지역사회에 사회적경제 알린다

### 전주시, 20일까지 '사회적경제 청년 서포터즈' 모집 사회적경제기업 적극 소개 · 홍보 · 행사 등 참여

전주시청 청년들이 기업의 이윤보다는 공동의 이익이나 사회적가치를 우선시하는 사회적경제의 홍보대사로 나선다.

전주시는 오는 20일까지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전주시 사회적경제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사회적경제 청년 서포터즈는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청년 2~5명이 한 팀이 돼 SNS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 소개·홍보하는 등 지역사회에 사회적경제를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서포터즈 참여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교통비와 식대 등 활동실비와 SNS 포스팅 수당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성과 발표 및 시상식을 통해 우수 활동팀으로 선발되면 상금도 지급된다.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SNS 포스팅이 가능한 도내 만 18~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 방문한 뒤 대표자 인터뷰와 생선품(서

비스) 체험, 근로자 인터뷰, 사회서비스 활동 등의 참여후기를 SNS에 올리게 된다.

또 사회적경제 박람회와 행복의경제학 국제회의의 등 시가 주최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행사에도 적극 참여한다.

서포터즈 참여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교통비와 식대 등 활동실비와 SNS 포스팅 수당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성과 발표 및 시상식을 통해 우수 활동팀으로 선발되면 상금도 지급된다.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SNS 포스팅이 가능한 도내 만 18~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 방문한 뒤 대표자 인터뷰와 생선품(서

포터즈)를 모집한다. 신청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해 이메일(jang1006@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사회연대지원과(063-281-2557)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인터뷰 등을 거쳐 서포터즈로 활동할 청년을 선정할 뒤 오는 27일 선발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김현도 전주시 사회연대지원과장은 "청년들의 재능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지원"이라며 "이와 함께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들이 사회적경제기업에 탐방하고 체험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역량있는 사회적경제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립 완산도서관 내 '자작자작 책 공작소' 도서 출판

### 제1기 입주 양봉선 작가 환경동화책 '당돌한 수달의 우당탕 여행'

사람들이 스스로 책을 쓰고 만들 수 있는 독립출판 전문도서관으로 탈바꿈한 전주시립 완산도서관에서 출판한 첫 번째 도서가 탄생했다.

전주시는 완산도서관 내 '자작자작 책 공작소'의 제1기 입주 작가인 양봉선 작가가 입주 작가 중 처음으로 환경동화책인 '당돌한 수달의 우당탕 여행'을 출판했다고 10일 밝혔다.

양봉선 작가는 1994년 동화집 '웃음꽃 피는 날'을 시작으로 '고모고모 우리고모', '가르릉과 수정이', '울어도 좋은날' 등 다수의 동시집과 시집, 산문집, 전자책 등을 발간한 전주시 대표 아동문학가이자 시인으로, 지난 4월 자작자작 책 공작소에 입주해 창작활동을 이어왔다.

양 작가가 출판한 '당돌한 수달의 우당탕 여행'은 환경의 중요성을



전주시립 완산도서관 내 '자작자작 책 공작소'의 제1기 입주 작가인 양봉선 작가가 환경동화책인 '당돌한 수달의 우당탕 여행'을 출판했다.

널리 알리기 위한 환경동화책, 전주천을 배경으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의 이야기를 재미와 감동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작가는 동화에서 수달이 자라는

과정에서 천적들을 물리치기 위해 온갖 시련을 겪지만 지혜롭게 극복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대기를 담았다.

이와 관련 자작자작 책 공작소는 완산도서관 내 3층에 ▲작가의 방(자작자작) ▲일상작가방(자작스테이) ▲시민작가광장(자작살롱) 등으로 구축돼 작가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면서 협업 네트워크가 가능한 창작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제2기 입주작가 14명이 전문·시민작가로서 집필 활동 중에 있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완산도서관 내 '자작자작 책 공작소'가 안정적인 창작활동 공간 역할을 수행해 양질의 책 출간을 지원하는 등 역량 있는 작가 발굴에 적극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피부 노화 예방 효과 쌍별귀뚜라미 발효 추출물 기능성 소재 발굴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원장 오병준)이 발굴한 쌍별귀뚜라미 발효 추출물 기능성 소재가 피부 탄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염증 및 피부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는 쌍별귀뚜라미 발효 추출물의 기능성 소재를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귀뚜라미과에 속하는 아열대성 곤충인 쌍별귀뚜라미는 단백질질을 비롯한 철분, 아연, 구리, 비타민B7, 필수아미노산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단백질 공급원뿐만 아니라 비만, 당뇨, 고지혈증, 비알콜성 지방간 개선 등에 효



쌍별귀뚜라미 (사진 출처 농촌진흥청)

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쌍별귀뚜라미 발효 추출물이 피부 탄력을 감소시키는 엘라스타제(Elastase) 활성을 크게 억제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또, 피부 주름 생성을 유도하는 콜라게나제(Collagenase) 활성도 억제시켜 피부 탄력과 피부 주름 개선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성과는 KCI(한국화학지인용액)급 국내 학술지인 한국생약학회지 2호에 실렸으며, 관련 기술은 1건의 국내특허로 출원됐다.

연구원은 전라북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쌍별귀뚜라미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곤충 사육농가와 곤충 가공기업의 경제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병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은 "연구원은 2019년부터 수행해온 연구소기업설립사업의 일환으로 기업 지원을 위한 농생명 자원 유래 고부가 기능성 소재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곤충자원에서 유래한 고부가 기능성 소재를 확보해 곤충 사육농가와 곤충 가공기업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